NOVARTIS

한국노바티스, 의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와 업무협약(MOU) 체결

Jul 01, 2020

- 한국노바티스-딥노이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질환 경과 및 치료 반응을 정량 분석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위한 공동 연구 상호 합의
- 임상 현장의 의료진 및 환자를 위해 보다 개선된 진단 및 치료 평가 지원 솔루션 제공 기대

서울, 2020년 6월 30일 - 한국노바티스㈜(대표 조쉬 베누고팔)는 지난 6월 15일 의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대표 최우식)와 강직성 척추염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직성 척추염 분야의 진단 및 치료 평가 지원 솔루션을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로 발전시켜 진단 및 진료의 유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결과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뜻을 함께 했다.

이번 공동 연구의 핵심은 강직성 척추염의 질환 진행 경과와 치료 반응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제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질병의 영상학적 진행을 객관적으로비교 및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병변의 자동화 분석 알고리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를 기반으로 X-선과 같은의료 영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실제 임상 현장 적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쉬 베누고팔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이번 협업은 의료 기술 생태계 다방면에서 디지털 혁신을 모색하는 노바티스와수준 높은 의료 AI 기술력을 보유한 딥노이드의 파트너십”이라며, “아직 의료 영상을 활용한 조기 진단과 치료 평가가제한적인 척추관절염 분야의 임상 현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혁신 솔루션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노바티스는 다양한 질병 분야에서 최적의 치료를 위한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유망 기업들과의 연구 협력과 교류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식 딥노이드 대표는 “글로벌제약사인 노바티스와의 이번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영상 분석과 진단 보조를 넘어, 치료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분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면서 “노바티스의 글로벌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임상 현장에 개발된 솔루션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임상 검증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적인 척추관절병증의 일종이다.[1] 강직성 척추염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점차 척추 마디가 대나무처럼 굳는 척추변형을 야기해, 장애를 유발한다.[2] 질환 진행 및 치료 경과를 X-선 등 영상검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발견이 어려워 정상 소견을 보이는 등 진단의 어려움이 있다.[1]

사진자료

사진1



한국노바티스 조쉬 베누고팔 대표이사(좌)와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이사(우)가 비대면으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노바티스(Novartis)에 대하여

노바티스는 인류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의약품 혁신에 매진하는 세계적인 제약 기업이다. 업계를 선도하는 노바티스는최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사회와 환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세계에서 R&D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노바티스의 의약품으로 치료 받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여명에 달하며 최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각지에서 140여개 국가 출신 125,000명의 노바티스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novartis.com에서 확인할 수있다.

한국노바티스(Novartis Korea)에 대하여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기업,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www.novartis.co.kr)는 계열사인 한국산도스를 포함해 약 58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만 약 200 여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국내 연구진과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환우 및 가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인 '치유(CHEER YOU)',환우의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성 암환자 지원 프로그램인 '가화맘사성'과 매년 전 직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봉사의 날'행사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한국노바티스	이지홍 이사	jihong.lee@novartis.com	02.768.9372	010.6569.5114
	하승혜 부장	seunghye.ha@novartis.com	02.768.9142	010.6271.2295
	박소진 부장	sojin.park@novartis.com	02.768.9052	010.2675.4565
㈜프레인글로벌	권고은 상무	kge@prain.com	02.3210.9773	010.6299.7309
	이재윤 과장	jwl@prain.com	02.3210.9591	010.8650.1554
	이승민 대리	smlee@prain.com	02.3210.9682	010.9554.0338

Source URL:
https://www.novartis.com/kr-ko/news/media-releases/hangugnobatiseu-yiryo-ingongjineungai-sopeuteuweeo-mic-peulraespom-jeonmungieob-

List of links present in page

- https://www.novartis.com/kr-ko/kr-ko/news/media-releases/hangugnobatiseu-yiryo-ingongjineungai-sopeuteuweeo-mic-peulraespom-jeonmungieob-
- http://www.novartis.com
- http://www.novartis.co.kr
- mailto:jihong.lee@novartis.com
- mailto:seunghye.ha@novartis.com
- mailto:sojin.park@novartis.com
- mailto:kge@prain.com
- mailto:jwl@prain.com
- mailto:smlee@prain.com